

국내 첫 '바이오항공유(SAF)' 시범 운항

- 9월 5일부터 인천-LA 구간 화물기 시범 운항... 향후 SAF 품질기준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, 이하 국토부)와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9월 5일부터 3개월간 인천→LA 노선(화물기)에 바이오항공유(SAF)*를 급유하여 시범운항한다고 밝혔다.

* (Sustainable Aviation Fuel) 폐식용유,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최대 80%까지 탄소배출 절감

- 첫 시범 운항은 9월 5일 17:45분 인천에서 LA로 가는 대한항공 KE207편(B777 화물기)이며, SAF 2%를 혼합한 항공유로 총 6차례(월 2회, 3개월) 실시하고, 시범운항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SAF의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.

※ 미국, 유럽 등에서는 SAF를 최대 50%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인증

- 이번 SAF 시범운항은 지난 6월 28일(수) 개최된 민·관 합동「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」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바이오연료 실증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,

- 국토부, 산업부, 인천국제공항공사, 대한항공, 한국석유관리원, GS칼텍스 및 한국공항이 수 차례 회의를 통해 SAF 시범운항에 필요한 항공기·운항노선 선정, SAF 급유 및 운항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뤄졌다.

-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시범운항은 우리나라의 SAF 상용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, 신성장 사업을 향한 도약이 될 것”이라면서, “탄소감축을 위한 세계적 추세*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SAF의 생산 및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* 현재 SAF는 전세계 항공유의 0.2% 생산 수준으로 프랑스는 2022년부터 항공유에 SAF 1% 혼합의무를 시작하였으며, EU는 2025년부터 SAF 2% 혼합의무를 시작하여 점차 확대 예정

-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“이번에 국내 최초로 바이오항공유를 국적 항공기에 투입, 시범운항하여 얻은 데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품질기준 마련 등에 활용하는 등 향후 관련 법·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며,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	책임자	과 장	김완국 (044-201-4284)
		담당자	사무관	홍덕곤 (044-201-4291)
			주무관	이서영 (044-201-4286)
	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서기관	임미정 (044-203-5222)



참고

바이오항공유(SAF) 시범운항 개요

- (목적) SAF 품질·성능·안전성 검증 및 SAF 급유를 위한 제반 인프라 (혼합, 운송, 저장, 급유 등) 점검
- (참여기관) 국토부, 산업부, 인천국제공항공사, 대한항공, GS칼텍스, 한국공항, 한국석유관리원
- (시범대상) 대한항공 B777 화물기, 인천(출발) → LA(도착)
- (시범기간) '23.9.5(화) ~ 11월(월 2회 3개월간 총 6회 시범운항 실시)
- * 첫 시범운항: '23.9.5(화) 17:45 출발 KE207편
- (SAF 혼합) SAF에 일반 항공유를 혼합하여 최종 2%로 희석(인천공항)
- (공급방식) 인천공항 보조탱크(SAF 혼합 37→2%) ⇨ 탱크로리(GS칼텍스 4대 지원) ⇨ 급유차량*(한국공항 2대 지원) ⇨ 화물기(B777) 급유

【SAF 급유체계】

